

8월 지구 월례회의의 겸 회원증강 세미나 개최, 120여명 참석

회원증강 1천명, 신생클럽 50개 창립 목표!

소셜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 5개 창립소개, 지역별 회원증강 목표 서약식, 매월 재단기부 표창식 등 '새로운 변화로 감동과 기적을 만드는 월례회의'

로타리안 기업의 로타리 참여와 봉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으로서 스타키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심상돈), KCC정보통신 (총재특별대표 이상현), ERA 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이영석), 지엔피링크 (총재특별대표 황순신), 체리쉬 (총재특별대표 유준식) 등 다섯개 기업, 총재특별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



지구 임원 및 클럽 회장, 총무단 8월 월례회의의 겸 18-19 회원증강 세미나가 8월 24일(금) 장세호 총재와 이동건 전R 회장, 윤상구 로타리재단 이사, 운영석 로타리재단 전이사를 비롯한 총재단과 지구임원, 클럽회장, 총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기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월례회의는 장세호 총재의 내빈 소개 및 총재인사와 이동건 전R회장의 격려사, 신입회원 환영식, 신규 고액기부자 및 7월 우수기부자 표창, 소셜 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 창립 소개 및 표창, 회원증강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신입회원 환영식에는 한양, 서울중앙, 서울아미, 서울문화, 서울새노원 로타리클럽 등 신입회원 10명이 참석하여 신입회원 증서를 장세호 총재가 전달했고, 최혜영 지구송리더 지휘와 경희수 인터랙트위원장의 반주로 '웰컴 로타리안즈'를 함께 부르며 환영식을 가져 성황을 이뤘다.

또한 금년도 월례회의에서 매년 실시할 예정인 재단기부 표창 시간에는 신규 재단 고액기부자로 허수창(서울문화, Level 3), 이희봉(서울문화RC, Level 2) 회원에게 크리스탈패를 전달했고, 매년 1구좌 이상 재단기부를 약속하는 PHS 회원으로 이번 회기들어 새롭게 가입한 황순신 3지역대표와 남궁근 9지역대표에게 회원증서와 배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7월에만 7,800달러를 기부한 서울관훈RC(회장 정휘영)과 5,100달러를 기부한 서울동남RC(회장 문찬정)을 재단기부 우수클럽으로 표창했다.

장세호 총재의 주도로 이번 회기 우리 지구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로타리안 기업의 로타리 참여와 봉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으로서 스타키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심상돈/30명), KCC정보통신 (총재특별대표 이상현/20명), ERA 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이영석/20명), 지엔피링크 (총재특별대표 황순신 / 20명), 체리쉬 (총재특별대표 유준식 / 20명) 등 다섯개 기업이 1차로 참여하기로 하여 총 이날 월례회의에서 창립 소개와 함께 창립을 주도한 5개 기업 대표이자 5명의 총재특별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회원증강 세미나는 회원증강 목적과 회원증강 노하우에 대해 장세호 총재가 직접 강연의 시간을 가졌고, 김종 사무총장이 지구 회원현황 분석 및 목표를 소개했다.



10개 지역대표들이 등단하여 총 696명의 금년도 지역별 회원 순증강 목표에 대한 서약식을 가졌다.



아울러 10명의 지역대표들이 등단하여 총 696명의 금년도 지역별 회원 순증강 목표에 대한 서약식을 가졌고, 우리 지구 클럽 중 금년도 최다 회원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창덕RC(25명, 회장 안상근), 한성RC(22명, 회장 김무일), 한양RC(18명, 회장 윤구홍)의 회장들이 등단하여 본 클럽의 목표와 증강계획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새로게 임명한 지구 사무차장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최진욱 직전 사무총장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선물 전달식의 시간도 있었다.

금회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월례회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사 시작 30분전부터 친교의 시간으로 커피를 함께 하는 리셉션을 갖고, 테이블 배치에서도 신입회원, 재단기부, 신생클럽 회원들을 우선 맨 앞줄에 배치하고 소속 지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좌석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9월 월례회의는 9월 21일(금) 재단 세미나를 겸하여 하얏트호텔에서 조찬행사로 개최되며, 10월 월례회의는 10월 19일(금)에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석간 주회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다. ☀

지구 주최 제1차 연사 초청 주회, 40여명 참석

강정임 ERA 코리아 대표 '한반도 통일시대의 부동산 전략' 주제로 강연



RI3650지구 주최 제1차 연사 초청 주회가 지난 8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삼성동 소재, 공간 스페이스 "알고(R.go)"에서 40여명의 로타리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호 총재와 이승우 전총재, 이종원 전총재, 유장희 차차기총재를 비롯하여 20여개 클럽에서 지구 임원 및 클럽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특강연사는 강정임 ERA 코리아 대표이사가 초청되어 '한반도 통일시대의 부동산 전략'을 주제로 약 1시간동안 유익한 강연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고, 식사 후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강연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주회에 초청된 강정임 대표는 이영석 7지역대표

(서울한강RC)의 영부인이며, 또한 개최 장소 역시 이영석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주어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지구에서는 금회기에 소규모 클럽 활성화를 일환으로 소규모 클럽의 정상적인 봉사와 주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RI3650지구 주최 연사초청주회와 봉사주회를 가능한 번갈아 실시할 계획이다.

연사 초청주회 개최는 소규모 클럽 회원 뿐 아니라, 3650지구 내 모든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연사의 강연과 여러 클럽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연사 초청주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좋은 연사를 모시고 개최하는 각 클럽의 주회에도 타 클럽 회원들의 참석을 희망하는 클럽들의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창립식 개최 서울회현RC 스폰서, 창립 로타랙터 21명으로 구성



서울회현로타리클럽(회장 문성우)은 지난 9월 15일 (토) 삼성동 코워킹스페이스 R.go에서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윤영석 前로타리재단 이사와 장세호 총재, 유장희 차차기총재를 비롯하여 서울회현 RC 문성우 회장과 김관수 직전회장, 권재진 차기 회장, 홍광희 총무, 강병원 클럽 로타리재단위원장 등 서울회현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정창화 로타랙트 지구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창립 회원 21명이 함께 했다.

초아의 봉사를 다짐하며 결성한 '서울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회원 공학도 21명은 서울회현 로타리클럽 이재훈 직전 총무가 금년도 초까지 서울산업기술대 총장을 역임한 것이 인연이 되어 창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김관수 직전회장과 강병원 클럽 로타리재단위원장의 노력과 수차례 대학 관계자 및 로타랙터들과의 협의를 거쳐 창립에 이르게 됐다.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김현동 회장과 회원들은 스폰서클럽인 서울회현로타리클럽 회원들의 훌륭한 봉사파트너가 되어 봉사가 필요 한 어느 곳이든 함께 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전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 로타랙트 클럽인 만큼 기금적 월 1회는 서울회현 로타리클럽의 주회에 참여하여 차근차근 로타리를 알아가는 것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Korea Polytechnic University)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출연으로 대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1998년에 개교한 대학으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해 있다. 중소기업 현장실무자에 대한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활발한 산학협력 및 학술교류를 하는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의 창립 소감 “3650지구 로타랙터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겠습니다!”

- ★ 회장 / 김현동 - 학교에서 로타랙트 관련한 회의만 하다가 실제 공식적인 행사인 발대식에 참여하였는데 생각보다 큰 활동이라 놀랐고, 로타리 클럽 회원 분들의 덕망 있는 모습을 보니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느꼈다.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 초대 회장 자리가 무겁지만 학교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부회장 / 조미연 - 로타랙트 부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자부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 이진희 - 학교를 대표해서 뜻 깊은 창립식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고 축하에서 들던 말처럼 내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를 상상하며 열심히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 ★ 김예원 - 로타랙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윤혜수 -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 손지현 - 한국산업기술대에서의 로타랙트 첫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김민진 - 처음해보는 활동이어서 기대가 되고 발대식 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셔서 좋았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 ★ 김민영 -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어서 기대가 되고 설 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
- ★ 유재환 - 내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 ★ 배규현 - 생각했던것보다 규모가 매우 거대해서 상당히 놀랐고 자부심이 들게 되었다
- ★ 서인혜 - 처음 가보는 공식적인 회의자리라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마음에 설레는 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딱딱하지 않는 회의자리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 조수연 - 뜻 깊고 자랑스러운 자리였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 ★ 최기원 -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고 좋은 분들 만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 전동근 - 로타리안에 있는 로타랙트라는 좋은 봉사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고 훌륭한 분들과 저녁식사까지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 ★ 허지수 - 처음으로 로타랙트 회원 모두가 모인 자리라 뜻 깊었고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 ★ 홍진호 - 사실 잘 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좋은 식사자리를 함께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 ★ 이규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로타랙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눔과 배움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첫걸음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로타리안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박진호 - 발대식하면서 앞으로 있을 좋은 경험과 만남들이 너무 기대되고 이제 시작인만큼 모두 좋은 팀이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정수현 - 오늘 발대식을 통해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맛있는 저녁식사 또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최현정 - 발대식을 통해 정식으로 로타랙트의 일원이되니 그만큼 책임감도 생기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거 같습니다!! 로타랙트에서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 신지윤 - 이번 로타랙트 발대식을 통해 로타리 클럽과 로타랙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인만큼 새로운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8-19년도 3650지구 장기 청소년 교환학생 선발



Rotary
District 3650



RI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이사벨 양 1년간
예일여고에서 수학, 스폰서클럽 서울남산RC

〈지구 호스트 청소년 교환학생〉
Isabel Villegas-Glang (2002년생)

- 스폰서 지구
 - RI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 호스트 클럽
 - RI3650지구 서울남산RC
- 호스트 학교
 - 예일여자고등학교



〈지구 스폰서 청소년 교환학생〉
차지영 (예일여고 2학년) 2001년생

- 스폰서 지구 및 클럽
 - RI 3650지구, 서울남산RC
- 호스트
 - RI 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 호스트 클럽
 - RI 5100지구 Keizer RC

2018-19년도 장기 청소년교환 학생으로 RI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이사벨(Isabel Villegas-Glang) 양이 8월 24일 입국하여 약 1년간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등을 공부하게 되며 서울남산로타리클럽(회장 윤승진)이 스폰서클럽으로 맡게 됐다.

또한 우리 지구에서는 예일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차지영 양이 청소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지난 8월 24일 미국 RI 5100지구(미국 포틀랜드)로 출국했다. 차지영 학생은 우리 지구 서울 자동차고 인터랙트클럽 지도교사인 차상우 선생님의 자녀로, 로타리 봉사파트너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보람을 함께 나누게 됐다. 우리 지구는 차세대 지도자인 청소년들의 국제우호증진과 외국문화 체험을 위해 지난 1999-2000년도부터 매년 미국 미네소타주와 네바다주 등지 RI5950/5960지구와 함께 상호 1년간의 장기 청소년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의 청소년교환 프로그램 다지구통합통제센터(Multi-districts YEP in South Korea)와 도움과 이호규 청소년교환위원장이 소속클럽인 서울남산RC, 그리고 예일여자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청소년교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